

# 유류세 15% 인하... 휘발유 리터당 123원 ↓

###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약 2조 경감효과

### “교통회계 여유자금으로 충당”... 가격담합 조사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유류세를 15% 내린다.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1당 최대 123원, 경유는 1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비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 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이번 인하 시기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인하 폭은 15%로 정했다. 10% 인박을 점진 시장 예상을 웃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어지간해서 과거에, 특히 (위 기 직후인) 2008년에 사용했던 정책을 쉽게 꺼내진 않는다. 그만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기폭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싶어서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잡았다. 세수 사정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1당 123원, 경유는 1당 87원, LPG·부탄은 1당 30원씩 각각 가격이 낮아지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1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1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1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사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It 이하 트럭이다.

고 차관은 “세계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역진적이며 환경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다”면

서도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부터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충전소의 매일 판매가격을 보고받는 ‘일별 가격 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와 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정유사 또는 주유소 간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한다. /뉴시스

## 금감원, 내달 중 농협은행 금융지주 종합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내달 NH농협은행과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종합검사는 올해 12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감독목적에 벗어난 금융사를 선별해 금감원이 종합적으로 살상이 조사하는 방식이다. 금융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폐지됐다가 유선식 금감원장 취임을 계기로 부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에는 농협은행·지주를 포함한 7개사에 대해 하반기 중 종합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은행 중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통상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검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사 휴지기를 감안하면 감독당국은 12월 중순까지는 검사를 마무리해야한다.

아직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검사는 통상 월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달 5일이나 12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 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은행 선정 “비정상적인 절차... 시작부터 삐걱”

### 비정량평가 비중 늘려 주관적 판단 크다는 비난

### 직원 대출금리 우대 사항은 논의 끝에 없애기로

군산시에 자리를 틀고 공사 공사 업무를 시작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주거래은행 선정에 두고 삐걱거리고 있다.

특정 일부 은행에 한해 선정 절차를 밟는다면 직원에 대한 대출 우대 사항을 배점에 포함시켰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이달 본격 업무에 맞춰 주거래 은행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 공사나 행정기관 등이 금고·주거래은행 선정시 제1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이번 새만금개발공사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전북은행 등 4곳에 한정해 공문을 보냈다.

비정상적인 절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평가기준에 있어 항목이 정해진 계량부문을 60점까지만 두고 나머지 40점은 별도 심의 등이 필요한 비정량 부문에 할애했다.

다분히 주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비정량평가에 지나친 점수 배정이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

배적이다.

여기에 계량부문 60점 가운데 ‘직원 대출한도 우대’ 사항은 15점까지 포함시켰다가 올바르게 없다는 판단에 뒤늦게 삭제 처리하는 일까지 진행됐다.

도내의 한 금융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의 금고선정에서 직원 우대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고 설명이 다하더라도 이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신설공사 이다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해 빠른 주거래은행 선정에 나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공사 등에서 해오던 관행적인 직원 우대 사항 등의 배점 관리는 자체 삭제기로 했다”고 밝히고 “또 비계량부문 역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편성해 객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주거래은행 선정 서류 제출 기한을 은행 의견 등을 참조해 당초 이달 24일에서 부랴부랴 2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뉴시스



도내 3000여명의 학생들이 농업, 농촌의 가치 전파를 위해 전북농협이 마련한 초등학교 스쿨팜에서 전통방식 벼 수확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생명의 소중함과 협동의 정신 배워요’

### 전북농협 스쿨팜, 전통방식 벼 수확체험 ‘인기’

도내 3000여명의 학생들이 농업, 농촌의 가치 전파를 위해 전북농협이 마련한 초등학교 스쿨팜에서 전통방식 벼 수확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어릴 때부터 밭에서 정성껏 벼를 관리, 수확행사는 낫으로 벼 베기, 지게 나락 나르기, 호풍기와 환태를 이용한 탈곡을 통해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지난 15일 군산 산복초를 시

작, 29일 전주 아중초를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팟과 재미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협동의 가치를 배우는 경험이 될 전망이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조금만 쌀 한 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통해 수천 년 이어온 인류 문명의 근본인 농업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농업이 학생 인성교육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어로 학교 내 유휴 부지인 화단 또는 자투리 공간에 밭을 조성한 후 학생들이 주 1회 수업시간에 꼬미농부가 되어 농사 관련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 3개시(전주, 군산, 익산) 농협이 협력하여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